



도원 스님은 새벽·사시·저녁예불과 10시간의 경전독송과 좌선으로 하루를 채운다. 힘드시지 않느냐는 질문에 스님은 “중의 할 일이 이것 말고 또 있는가” 하신다.

“스님, 턱담 한 말씀만 듣고 가겠습니다.”
 “나는 할 말이 없어요. 말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말할 줄도 몰라요.”
 무작정 법기로 작정하고 파계사 대비암을 오를 때만 해도 도원 스님께서 이렇게 완강히 취재를 거부하실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몇 말씀이라도 들어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간곡하게 청했다.
 “경을 읽고 싶으면 강사를 찾아가고 읍을 알고 싶으면 읍사를 찾아가면 되지 나한테 무슨 말을 들려 하시오. 부처님 말씀에 알지 못하면서 말하면 죄가 된다고 했어요. 내가 나를 아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젊고 훌륭한 스님들 많이 있는데, 나이 80 먹은 노인한테 무슨 말을 들으려고...”
 도원 스님 상좌로 스님을 모시고 있는 대비암 주지 법준 스님도 “멀리서 왔는데 몇 말씀 해 주시지요” 하며 거듭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간신히 사진 몇 장 정도는 찍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스님과 마주 앉았다. 현재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으로 원로회의 의장을

지낸 도원 스님. 도원 스님이 언론과의 접촉을 끊은 것은 2004년 3월, 3년간의 원로회의 의장직을 그만 두면서부터다.
 원칙과 소신이 뚜렷한 원로로 존경받고 있는 도원 스님. 하지만 그만큼 실망도 크셨던 것일까. 스님의 첫머디에서 그런 느낌이 들었다.
 “파계사에 온지 30년 됐습니다. 주지를 23년간 하고 대비암에 올라온 지도 꼭 10년 됐어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찾아온 사람에게 나름대로 포교를 한다고 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요. 전혀 변화가 없어. 법화경이나 금강경을 묻는 신도도 없고, 잘사는 방법을 묻는 신도 하나 없습니다. 법문할 때 혼을 내도 복만 달라고 하니 말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지. 종단도 종단대로 격정이 많고...”
 겨울 초입에 든 기온이 아직도 남아있어서인지 이따금씩 스님의 뉘소리가 갈라졌다. 사실 스님은 요즘 그리 건강하지 않다. 격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신경을 써야 할 상태라고 법준 스님이 귀띔한다.



관세음보살상 앞에서 '나무관세음보살'을 염송하고 있다.



도원 스님은 하루 세번 예불 때마다 석탑을 돌며 12분의 아미타부처님 명호를 세번씩 권다.



도원 스님이 한암 스님 밑에서 공부하던 시절 경전을 필사해 놓은 노트

“사람 도리 하면 족하지”



컨스님 편안하십니까

도원 스님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예불·경전·독송·좌선으로 하루 “잘 사는 방법 묻는 이 없고 복만 달라고 하니 어리석은 일”

하지만 예불과 하루 10시간 이상의 기도는 단 한 차례도 거르지 않으신다고 한다.

“다 우리 스님네들 잘못입니다. 우리 국민성은 어디로 갔고 도덕성은 어디로 갔습니까. 내가 잘못했고 우리 스님들이 포교를 잘 못했기 때문입니다. 종단은 종단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걱정거리가 많으니...”

갑자기 말씀을 하시다말고 이제 할 얘기 없으며 일어서시더니 가사를 수하신다. 저녁예불 시간이 된 것이다. 초소를 나선 스님은 법당 앞 석탑을 한 바퀴 돌고 난 후 석탑을 향해 절을 하시기를 세 차례 반복 하더니, 법당 옆 대웅보전 앞에서 몇 차례 절을 하신 뒤 10여분 동안 정근을 하시고는 다시 법당으로 돌아와 예불을 올리셨다.

스님의 하루는 새벽 4시 데 저녁예불 때와 똑같은 방식의 새벽예불로 시작된다. 오전 11시 사시예불까지 합쳐 하루 세 번의 예불을 빠짐없이 올린다.

탑을 돌 때는 염주를 돌리면서 <무량수경>에 나오는 12분의 아미타부처님 명호를 세 번씩 권다. 그리고 요사체 옆 관세음보살상 앞에서는 나무관세음보살을 108번 염송한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1~2시간 가량 정근을 하신다.

스님은 새벽·사시·저녁 예불을 마치고 나면 어김없이 좌선을 하거나 경전을 읽으신다. 좌선과 독

경하는 시간만도 10시간 정도나 된다. 거의 하루 종 일을 예불과 경전독송과 좌선으로 보내고 계신 셈이다. 이따금 찾아오는 손님을 만나기는 하지만 인사 받는 정도에 그친다.

여의치 않은 건강에 무리가 아니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스님은 “중의 할 일이 이것 말고 또 있는가” 하신다.

스님의 방은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다. 이런저런 장식품이 없어서인지 깨끗한 느낌이 더해졌다. 깔끔하고 소탈한 성격대로 스님은 꾸미는 것을 싫어하신다. 예지중지 하는 것도 없다. 있다면 하루 종일 스님 손을 떠나지 않는 염주 정도다.

다시 스님과 마주 앉았다. 인간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여쭙었다.

스님은 ‘사람 사이의 도리’를 강조하셨다. “상대가 진심을 몰라준다고,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서운해 할 것 없습니다. 감동시켜 보겠다는 그 마음부터 버려야 합니다. 그저 도리만 다하면 됩니다. 누가 알아주길 바라면서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집착을 버리세요.”

법준 스님이 도원 스님 몰래 도원 스님께서 젊었을 때 공부하셨던 공적 20여 권을 내보이셨다.

옛날 공학에 깨알 같은 글씨들이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빼곡하게 적혀있다. <화엄경> 등 각종 경전을 사경한 것이다. 상원사에서 한암 스님을 모시고 공부하던 당시 작성된 노트들이다.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 한자도 놓치지 않고 공부하려 했던 스님의 열의가 느껴졌다.

대비암은 노란 잔디로 겨울을 입고 있었다. 적

당한 규모에 깔끔하고 온화한 법당 앞마당은 편안한함을 느끼게 한다. 간간히 찬바람이 지나가는 법당 마루에 걸터앉으면 하늘과 땅 중간쯤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대비암은 스님을 닮았고, 스님은 대비암을 닮았다. 드러내놓지는 않지만 깊이 우러나는 사람 냄새가 대비암 구석구석에서 물어난다.

도원 스님은 지금도 손수 삭발을 하신다. 도량 구석구석의 집퓌를 뽏고 이곳저곳 어루만지시는 일도 볼이 지나고 여름이 되면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지금은 나이가 있으셔서 그렇지는 못하지만 손수 속옷을 빨아 입으셨던 도원 스님은 여전히 검소하고 소탈하다.

법준 스님은 도원 스님께져 녀 문안을 여쭙고 난 뒤 이런 말을 했다.

“노장님 모시고 사는 건 복이지요. 부처님 모시고 산다고 생각해요. 우리(상좌들)는 모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30년 뒤에 우리도 저런 모습이 될까’ 하고요.”

글=한명우 기자·사진=고영배 기자

강직·소탈...신도대상 경전 강의

도원 스님은 1928년 경북 영천에서 태어나 41년에 파계사에서 고승 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51년에 동산 스님을 은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이후 월정사와 파계사 주지를 거쳐 학교법인 능인학원 이사장과 조계종 선관위원장 및 중앙종회의원, 동국학원 이사를 지내는 등 종단의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그 후 1997년부터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으로 활동했으며, 2002년부터 2004년 3월까지 원로회의 의장을 역임했다. 현재 원로의원으로서 있으면서 파계사 대비암에서 10년째 주석하고 있다.

강직하고 소탈한 성품으로 존경을 받고 있으며, 지금도 신도들을 대상으로 경전 강의를 하고 있을 정도로 신도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다.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 학인모집

사단법인 대한불교 삼계종 산하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에서 불교의식범음·범패·작법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학기 ◀ 범패·소리과정

기본 불공의식, 사십구제, 천도제 작법에 필요한 소리 및 사물(태징, 목탁, 북, 요령) 다루는법, 사십구제·천도제·장엄 및 제사 준비등 전과정

2학기 ◀ 작법·무용과정

나비춤, 사방요신, 다계작법, 도량계작법, 바라춤 - 요잡바라, 관음계바라, 천수바라, 사다리나바라

강사 ▶ 박일초스님 직강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작법무 보유자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5호인천수륙제보유자

■ 개강일시 : 2006년 3월 7일(화요일) 오후 2시

■ 모집인원 : 00명 (FAX접수가능)

※ 본인 연락처 및 인적사항 필히 기재

■ 매주 강의요일 : 화, 목(주 2회) 오후 3시 ~ 5시

■ 접수기간 : 2006년 1월 ~ 2006년 2월 28일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대학은 초종파 불교종합예술대학으로 수료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삼계종·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나비춤 보존회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제 보존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 6동 612-4호 (전철 1호선 부평역 하차 남부역으로 나와서 굴다리 방향으로 5분 거리)

전화 : 032)529-6708 FAX : 032)529-6709

홈페이지 : 사단법인 인혜전문화예술원 http://www.bumpae.org 한글인터넷 : www.수륙제 www.범패 사단법인 대한불교 삼계종 http://www.samgyeojong.org

집착해서 무얼 얻는가

도원 스님의 가르침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집착에 얽매게 됩니다. 어떤 이는 집착하는 자신을 경계하면 서도 순간순간 그 경계심을 놓치며 집착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 뜻대로 따라주길 바라는데, 이것도 큰 집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집착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집착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새겨보아야 합니다. 집착하게 되면 결국 자기 마음의 골만 깊어집니다. 그래서 선지식들은 집착하는 그 마음을 놓아버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나무관세음보살을 자주 불러보세요.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수시로 그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관세음보살을 부르라 이 말입니다. 집착이 깊어지면 병이 됩니다. 그 때는 상대가 변해도 변한 줄 모릅니다. 상대가 따라주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해서 원망하면 집착을 벗을 수 없습니다. 이유없이, 조건없이 이해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더 좋은 방법은 내가 먼저 이해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그만큼 못 해주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가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사람이 모여 살면 반드시 양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싸움이 됩니다. 나한테 안 맞아도 양보할 줄 알아야 화합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가운데 가장 나쁜 죄가 화합해서 잘사는 대중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욕심없이 사람을 대해야 하는데, 욕심을 갖고 대하니까 제대로 안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저마다 욕심을 부린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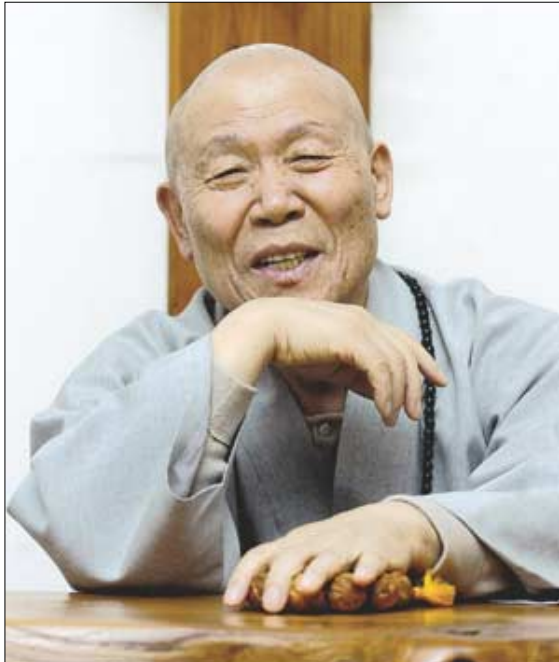
그런데 요즘 보면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웃을 생각하지도 않고,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든 알 바 없다는 식이에요. 대가도 없는데 굳이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해서 안 됩니다. 참음은 대가없는 참음이 돼야 해요. 극기라는 말은 자기 마음을 스스로 조절할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화를 삭이고 표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신경질 부린다고 무엇이 달라집니까. 신경질 부리는 순간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노력한 대가만큼 받아서 산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설혹 대가보 다도 될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복을 저축하는 것이니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생각입니다. 복은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것입니다. 오늘 업을 지으면 내일 그 결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운명을 개척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복을 잘 지어서 그 결과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인(因)을 짓지 않고 어떻게 좋은 과(果)를 바라겠습니까. 좋은 인을 짓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과 행동을 착하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복이 바탕이 돼야 합니다. 복력 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남을 원망하는 마음은 자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데 세상에 벌어질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내가 있음으로 해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모두가 자기가 지은 업에 의한 것이니, 좋고 나쁨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 업으로 여기고 그 업을 복일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인내심이 필요 합니다.

물론 이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매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능히 참는 것을 보살심이라 하고, 참지 못하면 중생심인 것입니다. 그냥 참는 것하고 욕된 것을 참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욕된 것을 참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까지도 능히 참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욕입니다. 그리고 인욕은 하심할줄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경계에 부닥치면 가르침을 잊고 본성이 드러나기 쉽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쟁겨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나 생각하고 행동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남의 힘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늘 땅 물 불 공기의 힘으로 살고 있



도원 스님은 집착에서 벗어나 보살심을 일으키고 복을 짓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 다.

다는 얘깁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나를 살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니, 그 은혜가 막 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마움을 몰라요. 왜 자연재해가 많아졌습니까. 아끼고 돌보아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인(人)자는 서로 더불어 의지하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더불어 살아야 하는 것이 사람인데 혼자만 잘 살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 광활한 천지 속에 나 혼자 있다고 해봐야 할 수 없습니다. 이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보면 고맙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에게 고마운 생각을 갖는다면 불평할 게 없지요.

내 생각과 행동이 남에게 어떤 피해가 가는가를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교육으로 이것을 극복해야 하는데, 요즘은 상급학교 진학

하는 데만 큰 신경을 쓰느라 인성교육은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니 인성이 메마르고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법당에서 법문을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였다가 법문이 끝 나고 공양간에 가면 딴 행동을 합니다. 불과 맺 분도 안해서 법문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던 것조차 잊어버립니다. 그럴 바에야 법문을 왜 들습니까. 선지식들의 가르침을 왜 들으려 합니까.

법문이 너무 흔합니다. 어려운 속에서도 법문을 들으려는 마음이 일어나야 진짜 법문이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좋은 말을 해준다고 해서 법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이 들은 대로 따르려고 노력해야 법문인 것입니다. 사경을 왜 잡니까. 사경을 하면 공덕이 되고 공부가 된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경을 하면서 온갖 욕심이 머리 속에 꽂 차 있으면 공덕이 되고 공부가 되겠습니까. 법문이 되고 안 되고는 말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리=한명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52>



놓친 기차는 아름답지 않다 (2)

“당신은 누구십니까?” 부처님이 종종 사람들에게 받은 질문입니다. 아마 제일 먼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는 보리 수 아래에서 세상으로 걸어 나오면 그날일 것일 니다. 우파기라는 남자가 길을 가다가 막 깨달 음을 이룬 부처님을 만났는데 너무나도 맑고 편 안하고 담담한 모습에 자기도 모르게 합장을 하 고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먹고 사느라 안달복 달 애면글면 제 속을 태워서 표정이 일그러지고 어두운데 당신은 대체 어떤 사람에게 좋은 말씀을 들어서 그러도 평화로워 보입니까?”

“나는 번뇌라고 하는 원수를 지혜의 칼로 항 복시키고, 괴로움에 빠진 사람들을 구제하려는 부처입니다.”

우파기는 “나는 붓다”라는 부처님의 대답에 이렇게 대꾸합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이만, 나는 지금 바쁜 일 이 있어서...” (불소행찬)

만약 그가 바쁜 일 모두 접어두고 대체 뭘 깨 달았기에 붓다라고 하는지를 자세하게 물었다 면 그의 삶은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가장 따

그런 노인에게 부처님은 생사에 관한 시를 읊 었습니다만 노인은 성가시거만 해서 그저 “잘 알았으니 다음에 오시오.”라고 대답할 뿐이었 습니다. 부처님께서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가래가 떨어져 노인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 니다.<법구비유경>

우파기와 노인, 이 두 사람은 똑같이 ‘바쁘 다’고 말합니다. 진짜로 가장 바쁘고 급한 일이 대체 뭘까요? 그것부터 한번 곰곰이 생각해볼 일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아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 그리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힘들다’, ‘괴롭다’라는 말은 무수하 게 쏟아내는데 정작 왜 힘들고 괴로운지를 차분 히 알아볼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무엇인 가를 이루어 그 힘들고 괴로운 순간을 모면해 볼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려는 마음속에는 무엇 이 들어 있을까요? 무엇인가를 힘으로써 자기 는 지금 여기에 생존해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 게 확인시키려는 마음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살아있다 는 것을 확인시키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럴 것

숨돌릴 겨를조차 없이 ‘바쁘다’ 외치는 당신 가장 시급한 일이 뭔지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

끈끈한’ 깨달음의 소식을 청진 세상에서 가 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파기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도 있긴 합니다. 어떤 80세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평생 쓰고도 남을 큰 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도 인색하고 완고하였습니다. 게다가 집을 증축 하느라 여념이 없었지요. 평생의 역자이라도 만 들어내려는 듯 노의장을 과시하며 아마다마한 대저택의 공사를 손수 지휘 감독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가만히 살펴보다 이 노 인의 수명이 그날 하루뿐인 걸 알아차리셨습니 다. 얼른 달려가셨지요.

“노인장,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이 집은 누 가 살려고 이렇게 화려하게 짓고 있습니까?”

노인은 자랑스럽게 대답하였습니다.

“앞 사방재에는 손님을 대접하고 뒤채 별당 에는 내가 살고 자식들이며 하인들도 방 하나씩 주어야 하고...”

“내가 오늘 생사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 기 한 자락 들려드리고 싶은데 잠깐 일을 멈추 고 여기 앉아 내 말을 좀 듣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지금 바빠서... 다음에 오시 요.”

입니다. 왜 불안할까요? 왜 인간은 매순간순간 자기 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한 것 일까요?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없 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죽은 사 랑이 되어버릴까 두려워서 말입니다.

부처님은 ‘왜 인간은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가’에서부터 사색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 이 유를 방황하게 따져 들어갔더니 열두 번째 단계 에서 ‘어리석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음은 다른 것에 대한 어리석음이 아니라 자신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 음이요, 그 어리석음이란 것은 바로 내 속에 들어 있다는 사실도 아울러 밝혀낸 분입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들의 가장 근본 적인 원인은 바로 중생을 하나하나에게 들어 있 음을 깨달은 분입니다. 그것을 알고 나서 그 열 두 단계의 이유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세 상으로 걸음을 놓으신 분인데 우파기와 노인은 그럴 놓치고 만 것입니다. 행복의 땅으로 가는 기차를 탈입니다. 어찌 애석하다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계속)

■ 이미형(중국역경원 역경위원)

홍승스님의 사찰음식강좌 회원모집 안내

1. 강좌 안내 및 장소
가. 강좌기간 : 초급반 - 3개월간
중급반 - 3개월간
고급반 - 6개월간
나. 강좌장소 : 홍승스님의 사찰음식 연구회 강습실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49-13 학빌딩 2층)

2. 모집인원
초급반 강좌 : 선착순 20명 모집

3. 강좌 및 실습내용
가. 매회 2~3 가지의 사찰음식 실습
나. 사찰음식에 담긴 뜻과 의미에 관한 교육
다. 천연조미료의 종류와 제조 방법에 대한 교육
라. 올바른 식사에 절에 관한 교육
마. 사찰음식의 발굴과 보급 연구
바. 조리에 관련된 각종 특강

4. 특징 : 수료증 수여, 연구회원 자격 부여
사찰음식집 개념 시 지원, 출장 요리사 자격부여

5. 준비물
가. 강좌수강료 : 3개월 40만원 (재료비 포함)
(입금계좌 : 하나은행 755-910044-02507 환승회)

나. 입회원서 (소정양식)

6. 문의 및 접수
홍승스님의 사찰음식 연구회
대표전화 : 02)2058-0818, 017-392-3452
E-mail : sansaro7@hanmail.net

*알차게는 연구회에서 지급해 드립니다.

홍승스님의 사찰음식연구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49-13 학빌딩 2층 문의(02)2058-0818, 017-392-3452

사찰 연등 및 전선 (별당용)

불제기업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기업입니다.)

분리형

일체형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

등 간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전구 (정 품)

▶ 불제대원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종류: 3W, 5W, 10W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일미 견고하여 갈 때까지 않으며 할리먼트가 6배 (특 할리먼트로 빛이 훨씬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 사찰용(1W, 2W, 3W), 반 영구적인 특수전구(정품)

🌸 간접지용 초 방생, 탐불이 행사용
🌸 청사초롱 및 초롱 곁이대

연 등 (정 품)

법당등(강단등), 영기등, 오색등, 황금등, 주불등, 특수등

군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 선 시 공